

京都の伝統産業 京都的傳統產業

西陣織



最早起源於 5 ~ 6 世紀左右、由豪族・秦氏引進養蠶與織物技術開始、並在 15 世紀應仁之亂後奠定基礎。西陣織種類極其繁多、分為綴、錦、緞子、御召、絢織、絹織、天鵝絨 (Velvet) 等、其特色為使用多種色彩的線編織出各種精緻絢爛豪華的圖樣。主要使用於和服腰帶、另還有用於和服衣料、能裝、神官服裝、室內裝飾等等。

製作：京都市

京都の伝統産業 京都的传统产业

西阵织



起源于公元 5 ~ 6 世纪前后、豪门望族秦氏开始的养蚕和纺织活动、在 15 世纪应仁之乱后、打下了基础。西阵织样式多种多样、有“缀”、“锦”、“緞子”、“御召”、“絢”、“絹”、天鹅绒 (Veludo) 等（皆为和式织法）样式、其特色是用色彩丰富的丝线编织而成、图案精美、绚烂华丽。其产品多以和服衣料（以和服衣带为主）还包含能乐服、神官服、室内装饰品等。

制作：京都市

京都の伝統産業 교토의 전통산업

니시진오리



5 ~ 6세기 경, 호족인 하타씨가 양잠과 직물을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되어, 15세기 '오닌의 난(応仁の乱)' 후에 그 기반을 다져졌다. 니시진오리는 그 종류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며, 쓰즈레, 니시키, 돈스, 오메시, 가스리, 로, 비로도 등이 있다. 다양한 색의 실을 사용하며, 현란하고 화려한 실 사용법이나 모양이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전통의 복용 오비(하리끈)가 주력 상품이며, 옷감, 노(能), 신관 복장, 인테리어용 등으로 생산된다.

교토시 제작

京都の伝統産業 Traditional Industries of Kyoto

Nishijin-ori (Woven textiles)



With origins that trace back to the 5th or 6th century when the powerful Hata clan began silkworm raising and silk weaving, this type of silk weaving began in earnest in the 15th century at the time of the Onin War. *Nishijin-ori* is extremely varied in nature, utilizing hand-weaving, brocading, damask, *omeshi*, *kasuri*, and *ro* weaves, velvet and more, and it is renowned for its exquisite use of threads of many colors. It is used in interior decoration, Shinto priests' clothing, Noh theatre costumes, bolts of cloth for kimono and especially for the obi sash used with kimono.

Produced by City of Kyoto